

2008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 1.③ 2.⑤ 3.⑤ 4.④ 5.④ 6.① 7.⑤ 8.④ 9.② 10.②
11.① 12.⑤ 13.② 14.⑤ 15.③ 16.① 17.③ 18.③ 19.④ 20.②
21.⑤ 22.① 23.① 24.④ 25.④ 26.③ 27.② 28.⑤ 29.② 30.③
31.② 32.④ 33.⑤ 34.③ 35.③ 36.④ 37.⑤ 38.① 39.① 40.②
41.② 42.④ 43.② 44.② 45.② 46.④ 47.④ 48.① 49.④ 50.⑤

[1-5] 듣기

1. 이제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일기에서 느낀 점이 많았죠? 어린 시절 백범 선생의 인생을 바꾸게 했다는 구절, 한번 읽어 볼까요? 상호불여신호요, 상호불여심호라. 나도 여러분 나이였을 때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고, 이후에도 이 구절을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럼, 수업을 마치기 전에 체로키 부족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어떤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어요. “애야!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 같지. 하나는 욕심이 많고 잘난 척만 하는 녀석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너그럽고 겸손한 녀석이란단다. 이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나지.” 손자는 잠시 그 말을 생각하다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어느 쪽이 이기나요?”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 주었지요. “그건 네가 먹이를 주면서 잘 돌봐 주는 녀석이지. 그래, 너는 어떤 녀석을 돌보고 싶니?”라고 말이지요.

이야기 속의 노인이 손자에게 어떤 말을 하려 했을까요? 백범 선생께서 깨달았던 것과 노인이 손자에게 전해 주고 싶어 했던 것을 잘 새기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으면 해요.

1. 추론적 사고(발화자의 의도 추론하기)

정답해설 : 강연에서 두 가지의 예화를 제시하고 그 예화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어떤 교훈적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추론하는 문제이다. 먼저 김구 선생의 일기에서 김구 선생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소개된 구절은 인간의 훌륭함을 결정하는 요소는 용모나 건강이 아니라 심성임을 말하고 있다. 마음에 상반된 요소가 있어서 이들이 늘 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음의 주인인 자신이 먹이를 주며 돌보는

노력에 따라 싸움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 노인의 이야기에서는 올바른 심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두 예화는 각각 심성의 중요함, 심성을 갈고 닦는 노력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했을 때에는 바른 품성을 기르고 닦아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③의 추론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건강한 몸’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추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지혜를 얻기 위해 어른들을 본받아야겠다는 것은 들은 내용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추론이다. ④ ‘어려운 일’의 극복에 대하여 추론하고 있으므로 이야기의 핵심적 의도와 관련성이 떨어진 진술이다. ⑤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이야기 속 두 예화를 종합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2.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두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흔하디흔한 삭정이이고, 다른 하나는 페르메르의 <진주 귀고리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하죠. 들 중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죠? 네, 당연히 여러분은 페르메르의 그림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겠죠.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의 대표작으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삭정이는 별 가치 없는 자연물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피카소와 맞먹는 어떤 대가가 그것을 미술관에 전시하고 <존재의 역사> 같은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그것을 보려고 미술관을 찾을 것이고, 비평가들은 앞 다투어 혹시 그것에 어떤 의미나 철학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해석하려 들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삭정이가 더 이상 자연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재고하게 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예술, 특히 미술 작품은 전시적 가치가 있는 어떤 인공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술관의 삭정이에겐 방금 언급한 두 요소 중 ‘전시적 가치’만 있지, ‘인공성’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없습니다. 예술가가 한 일이라곤 이미 존재하는 사물을 미술관에 갖다 놓은 것뿐이죠. 그런데 어째서 그 사물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예술가의 명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가 없더라도 ‘인공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현대 예술의 경향에 있습니다. 즉, 어떤 사물에 감상 대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인공성’이 갖춰진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2.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강연자는 자료로 제시된 두 가지의 대상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면서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이어서 예술의 두 가지 속성을 ‘전시적 가치’와 ‘인공성’으로 제시하면서 ‘인공성’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때 비예술로 보이는 대상도 예술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강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청자라면, ‘어떤 대상이라도 경우에 따라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예술에 대한 과거의 통념이 현대에 들어서는 유효하지 않다. ② 표면적으로 인공성이 없어 보여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전시적 가치가 없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③ 화자는 전시적 가치와 인공성은 예술 작품의 기본적 속성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어떤 사물에 감상 대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인공성이 갖추어진다고 보고 있다.

3. 이번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곳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있는 타림 분지입니다. 텐산 산맥과 쿤룬 산맥 등에 둘러싸여 있으며, 가운데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습니다. 면적은 33만km²로,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1.5배나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분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타림 분지의 생성 원인은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물리학의 발달 덕분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메갈리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메갈리스란, 지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뜨겁고 무른 맨틀에 자리 잡은 차갑고 거대한 암석 덩어리입니다. 지구를 커다란 달걀이라고 보면 노른자는 핵, 흰자는 맨틀, 그리고 껍질은 지각에 대응하는데, 메갈리스는 달걀 껍질 조각이 흰자로 파고들어 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갈리스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판들이 맨틀 위에서 움직이다가 서로 충돌할 때, 하나의 판이 다른 판의 아래로 밀려들어가 그 끝부분이 상부 맨틀과 하부 맨틀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하 600~700km 깊이까지 도달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충돌이 진행되면 그것은 맨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판에서 떨어져 나와 맨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침강 과정은 천만 년에 이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메갈리스가 침강하게 되면 지각에도 거대한 규모의 침강이 일어나는데, 이곳 타림 분지가 바로 이렇게 해서 생긴 지형입니다.

3. 추론적 사고(설명 방식의 추론)

정답해설 : 다큐멘터리에서는 중국의 타림 분지가 어떤 지질학적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타림 분지’와 ‘메갈리스’는 일종의 현상과 원인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를 ‘상반된 두 사례’로 파악하여 이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고 한
⑤는 이 다큐멘터리의 설명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질학적 구조를 달걀의 노른자, 흰자, 껍질에 비유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분지의 형성 원인을 지구 물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이렇게 거대한 분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 ④ 면적(33만 km²), 메갈리스가 침강해 들어가는 깊이(600~700km) 등을 언급할 때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4-5.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얼마 전, 동일한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횟수가 3개월간 130회를 웃돈 사람이 1,500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 : 예, 그렇습니다. 의료 서비스 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걸 그 환자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료 서비스의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대기 시간이 긴 데 반해 진료 시간이 짧아, 과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좀 더 나은 병원을 찾아 나서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남 : 저는 선생님과 달리, 이 문제의 원인을 건강 보험 제도에서 찾고 싶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든 적게 이용하든 환자가 지불하는 진료비에는 큰 차이가 없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 여러 병원을 순례할 수 있는 겁니다.

여 :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 논리로만 보고 계신 듯하네요. 아무리 자기 부담이 적다고 해도, 할 일도 많은데 환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려고 할까요?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보다 완벽한 진단과 처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병원을 찾아서 자신의 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확실하게 치료하려는 것이지요.

남 : 경제 논리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과 거기서 얻는 이익을 비교해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과잉 진료를 받게 만든다는 거죠. 가령,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고 칩시다. ‘갑’은 건강 보험 덕분에 큰 부담 없이 병원을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반면에 ‘을’은 필요할 때만 병원에 가고요. 그런데 의료 서비스를 과잉 소비한 ‘갑’ 때문에 보험 재정에 부담이 생기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갑’뿐만 아니라 ‘을’의 건강 보험료까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을’도 자기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갑’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4. 추론적 사고(화자의 입장 추론)

정답해설: 남자는 지나친 병원 이용 문제의 원인을 건강 보험 제도에서 찾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 보험에 지불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자신이 얻는 이익을 따져보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과잉 진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 진료에 대해 남자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건강 보험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손해 의식을 줄이고,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늘림으로써 필요할 때만 병원에 가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남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본인 부담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④가 적절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병원 평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관심을 갖는 여자의 생각에 가깝다. ② 소득 수준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건강 보험료를 조절하더라도 사람들이 건강 보험료의 비용이 병원 진료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보험료와 진료비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③ 건강 보험료를 올린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잉 진료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⑤ 보험료 대비 진료비의 건강 보험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남자의 입장이다.

5. 비판적 사고(자료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여자의 주장은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원인이 병원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신의 병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터뷰 자료가 적절할 것이다. ④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과연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병원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병원의 개수에 대한 불만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이다. ② 과잉 진료가 아니라 진료비 부담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이다. ③ 병원에 관한 인터뷰가 아니라 약 조제에 관한 인터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병원을 직접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가 진료한 경우에 관한 인터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 추리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논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서 쓸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들을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에 이용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논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업적 이용’이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인터넷 이외의 정보 습득 방법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보고서 작성에 이용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태도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추론적 사고(내용에 맞게 연상하기)

정답해설 : 문두에 제시된 연상의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삶은 연극’이라는 제목에 연결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둘째는 배우가 연극의 요소들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⑤는 이 두 조건에 따라 진행된 연상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연극의 요소 중 ‘소품’에 초점을 맞춰 연상하고 있는데, ‘소품’이란 연극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품’을 이용한 연상의 경우, ‘적절한 곳에서 쓸모 있게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⑤에서는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는 내용을 끌어내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은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소품’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내 삶의 터전’이라는 내용이 ‘무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②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관객’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③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삶’에 관한 내용이 ‘대본’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④ ‘주목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은 때’에 관한 내용이 ‘조명’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8. 추론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는 학급 회의에서 나온 발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세 사람의 말을 통해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갑’의 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강조’라는 내용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을’의 말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의 조건을, ‘병’의 말을 통해서 ‘운율감’이라는 형식적 조건을 제시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④이다. ‘더불어 숲이 되는 정겨운 우리’에는 ‘공동체 의식’에 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모두가 아름답리 고운 나무들’이나 ‘더불어 숲이 되는’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절로 대구의 형식을 취하면서, 4음보의 율격을 지킴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 조건 중 ‘운율감’과 관련된 조건만 지키고 있다. ② ‘공동체 의식’, ‘운율감’은 나타났지만,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③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라는 비유적 표현은 나타났지만, ‘공동체 의식’이나 ‘운율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별처럼 빛나는 꿈’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

들이 모여'라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발견할 수 있지만, '운율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9.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활용)

'세계 숲 보전'을 촉구하는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논지 전개 방향과 자료를 연결할 경우, ②는 적절하지 않다. '숲 파괴로 인한 폐해'를 전달하기 위해 ㉠을 숲 파괴의 피해 사례로 제시한다는 것인데, ㉠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시민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시민 단체들의 대응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역시 '숲 파괴로 인한 폐해'를 제시하는 논지의 흐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숲의 보존 실태와 부정적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 ㉡은 숲이 줄어드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③ 정부의 통제 밖에서 진행되는 아마존 개발은 무분별한 벌목과 개발의 원인으로 제시되기에 적절하다. ④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와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 다국적 곡물업체 사이의 열대우림산 콩 구입 중지 협정은 대규모 삼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적절하다. ⑤ 생태 보전에 대한 관심이 먹을거리나 아토피에 비해 매우 적다는 ㉢은 독자의 관심을 촉구하기에 적절하고, 삼림 파괴에 대해 저항한 사례인 ㉣은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기에 적절하다.

10. 비판적 사고 (고쳐쓰기)

정답해설 : 제시된 고쳐쓰기 방안 중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②에서는 '사람들이'와 '느끼겠지요?'의 주어 - 서술어 호응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문장을 살펴보면 두 개의 절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부분에 제시된 절에서 '사람들이'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열게 된다면'이며, 뒷부분의 절에서 '느껴지겠지요?'와 호응하는 주어는 '복도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술 호응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고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둘째 문단은 ㉠에 관한 내용을 상세화하는 내용인데, 안 여단이문과 밖여단이문에 관한 설명만 있을 뿐 안팎으로 여단은 문에 관한 설명은 빠져 있으므로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③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부딪힐'이 요구하는 부사어인 '문에'를 보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의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며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문맥이 아니므로 '그렇기 때문에'보다는 '이렇게'가 적절하다. ⑤ ㉢의 전후 문맥은 여단이문의 여는 방향과 관련되므로, '문을 여닫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은 문맥을 벗어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11. 어휘 · 어법 (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종결어미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이

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 종결어미가 다양한 문법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이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은 적절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제시된 종결 어미들 중 문장의 과거·현재·미래와 같은 시제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똑똑하다고’의 ‘-고’, ‘가느냐가’의 ‘-가’는 문장 성분을 표시해 주는 조사로 종결어미 뒤에 사용되었다. ③ ‘그치겠다’의 ‘-다’는 진술, ‘그치겠니?’의 ‘-니?’는 의문, ‘그치겠구나!’의 ‘-구나!’는 감탄의 의도를 나타낸다. ④ ‘듣습니까?’의 ‘-습니까?’, ‘듣소?’의 ‘-소?’는 발화 상대의 지위나 연령에 따른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높임법을 위한 어미이다. ⑤ ‘앉아라’의 ‘-아라’는 명령형 종결 어미로 ‘가다’와 ‘가다’로 끝나는 동사,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 끝 음절의 모음이 ‘ㄱ, ㄴ’인 동사 어간 뒤에 붙으며, ‘떡어라’의 ‘-어라’ 역시 명령형 종결 어미로 끝 음절의 모음이 ‘ㄱ, ㄴ’이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는다.

12. 어휘·어법 (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사전에 실릴 때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동사를 제시하며 그 뜻풀이와 동사가 쓰이는 구조가 잘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⑤이다. ‘여기다’의 뜻풀이도 적절하며, ‘여기다’가 쓰이는 구조에서 필요한 성분인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깔다’의 뜻풀이는 ‘젓혀서 벌리다’가 아니라 ‘바닥에 펴놓다’이다. ② ‘스치다’의 뜻풀이는 ‘세계 닿거나 마주치다’가 아니라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이다. ③ ‘맡기다’의 뜻풀이는 적절하나, 쓰이는 구조에 대한 표시로는 ‘...이 ...을’이 아니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이 ...에게 ...을’이 적절하다. ④ ‘푸다’의 뜻풀이는 적절하나, 쓰이는 구조에 대한 표시로는 ‘...이 ...에서’가 아니라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이 ...에서 ...을’이 적절하다.

[13-16] 현대시

(가)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작품해설 : 이 시는 국경을 넘나들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결국은 낯선 땅에서 침상 없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조선인 아버지의 임종을 통해 시베리아 유이민의 참담한 실상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가 고향이 아닌 곳(아라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 유랑민들의 고된 삶을 대변한다. 이 시의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풀벌레 소리는 시적 화자의 슬픔을 대변해 주는 대상인 동시에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비극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어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임종과 유랑민의 비애

(나) 박용래, '월훈'

작품해설 : 이 시는 겨울 산촌 외딴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산문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 적절한 점표와 의태어의 사용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은 갯 속 같은 마을에서도 동떨어져 있다. 그러한 외딴집에서 노인은 긴 겨울밤에 시장기를 달래며 짚단의 소리, 새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외로움을 느끼기에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노인의 고독은 심화될 뿐이다. 노인의 발은 기침 소리가 끝나며 이어지는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노인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감정이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산촌 노인의 고독감과 그리움

13.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화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회상하는 과거의 장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순간의 장면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화자의 슬픔은 풀벌레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와 결합되며 자연스럽게 절제되어 있다. (나)는 첩첩산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 동떨어진 마을에서도 외딴집에 살고 있는 노인의 외로운 상황은 배경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노인이 귀 기울이고 있는 청각적 이미지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벽이 무너지라고 울고 있는 귀뚜라미는 노인의 처절한 외로움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월훈의 시각적 이미지는 여운을 주며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우의적이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는 화자의 직접 체험을 표현한 것이다. ③ (가)의 화자는 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체험을 절제된 목소리로 담담하게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대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화자가 대상과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 화자는 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노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화자 자신을 대상화하여 표현한 것은 없다. ⑤ 회상하는 방식은 (가)에서 엿볼 수 있다.

14. 추론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경험을 회고하고 있다. 아버지는 고향도 아닌 곳에서 침상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보기>의 화자가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화자의 아버지는 젊어서 밀수 때문에 러시

아를 오가며 고생을 하셨고, 다시는 갈 수 없는 러시아를, 그곳에 계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외로워하신 분이다. 이러한 삶을 사신 아버지이기에 (가)에서 화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대로 울음’을 운 것은, 그만큼 슬픔을 극대화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보기>의 두 번째 작품에서 비록 아버지가 밀수를 하며 위태로운 삶을 사실 때 화자 자신이 아버지에게 성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젊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임종의 순간에는 타향에서 침상도 없는 집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 ② <보기>의 두 번째 작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밀수를 한 것은 결국 가난한 삶 속에서 우리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아버지에게 러시아는 외할머니와 큰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젊어서 먹고 살기 위해 밀수를 다녔던 곳이기도 하기에 러시아 지명에는 아버지의 고달픈 삶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의 첫 번째 작품을 보면 아버지는 러시아를 못 잊어 늘 외로운 분이셨다. 그렇기에 (가)에서 말한 ‘피지 못한 꿈’은 바로 이러한 내용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5.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에서 노인이 살고 있는 외딴집은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노인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며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목가적’이란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전원’의 배경을 떠올리게 하기에 (나)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나)의 화자는 이러한 노인을 관찰하며 그 내용을 서술할 뿐이지, 이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노인의 귀 기울임에서 고독을 읽어내고, 귀뚜라미의 울음을 통해 노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노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② 동떨어진 마을의 외딴집은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시켜주고 있다. ④ 마지막 장면의 달무리는 노인의 시선이 머문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처지를 느끼게 하기에 독자에게 진한 여운을 느끼게 한다. ⑤ ‘마을’의 반복, ‘콩깍지, 외딴집’의 반복과 연쇄, ‘짚단, 짚오라기’, ‘새, 새들’, ‘울지요, 읍니다’의 반복과 연쇄가 리듬감을 주고 있다.

16.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풀벌레 소리’는 화자가 느끼는 극도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다. B에서의 겨울 귀뚜라미 역시 짚단과 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나 누가 찾아올까 하는 노인의 기대감이 허물어졌을 때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다. ‘겨울’, ‘떼를 지어’는 이러한 노인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화자가 느끼는 극도의 슬픔을 무력한 현실이라 할 수 없다. ③ 관조적이란 대상을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음미하며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A]와 [B]에서는 화자나 대상의 슬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7-19] 언어, '발음기관의 구조와 작동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 발음 기관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따른 모음과 자음의 발음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소리는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는데,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과 그 작동 원리는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음의 경우에는 후두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자음의 경우에는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소리가 분화된다.

[주제] 발음기관의 작용에 따른 자음과 모음의 발음 원리

17.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 작동 원리는 같다고 첫 번째 형식단락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이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란 언급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단락을 보면, 후두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모음의 분화에 관계를 한다고 나와있다. ② 4단락에 발음에 관계되는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소리값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하였다. ④ '마찰음'은 공기를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 ⑤ '비음'은 코안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므로, 코가 막히면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18.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인간이나, 침팬지, 오랑우탄은 이 후두의 위치가 모두 목구멍 정도의 높이로 태어난다. 모음은 이 후두의 위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모음은 후두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후두가 목구멍 아래쪽에 자리 잡게 되면서 모음이 분화할 수 있는데 비해, 유인원들은 그 위치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성할 수 없는 것은 선천적으로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후두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므로 후두가 목구멍 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모음 분화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② 인간의 경우에도 갓난아이일 때는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후두의 위치가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 ④ 화석 인류의 발성 기관을 재구해 보았을 때 몇 개의 모음만

발성되었다는 것은 현대인에 비해 완전히 모음이 분화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므로, 후두의 위치가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⑤ <보기>에 제시된 화석 인류의 증거를 통해 볼 때, 인간이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

19. 추론적 사고(핵심 개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자음의 조음 위치는 각각 ‘9’와 ‘5’에 해당한다. 모음 ‘ㅓ’는 입과 목 안의 공간 크기가 비슷한 상태에서 발음하고, ‘ㅣ’는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여 발음 한다고 했으므로 각각 ‘㉠’, ‘㉡’에 해당한다. [답] ④

[20-24] [고전시가 + 수필]

(가) 정극인, ‘상춘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전 79수로 된 가사로 글쓴이가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인 전라도 태인으로 돌아가 만년을 지내면서 봄날의 흥취에 한껏 젖어 온갖 풍류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다양한 표현기법과 고사의 사용을 통해 자연 속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부귀와 공명을 욕심 내지 않고 청풍과 명월을 벗하는 안빈낙도의 생활 자세를 지니며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노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표방하는 은일가사의 첫 작품이며, 송순과 정철로 이어지는 호남 가단 형성의 계기가 되는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주제] 봄의 경치를 완상하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나) 설장수, ‘어옹’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속의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어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삶의 모습은 ‘물, 구름, 호수, 안개, 달, 배’ 등 자연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으며, 이와 대립되는 세속적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헛된 이름, 서울 길, 붉은 먼지, 옥당’ 등이 있다. ‘도롱이, 삿갓’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옹으로서의 화자는 실제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안분지족하며 살고 있는 은일자로서의 어부라 할 수 있다.

[주제] 은일자인 어부의 삶에 대한 만족감

(다) 남공철, ‘동원화수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글쓴이의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대상의 대비적 특성을 나열하고, 이를 대하는 종의 태도를 드러내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있는 복숭아나무와 불품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잡목의 대비는 글쓴이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대상의 외모와 실용성을 중시하여 복숭아

나무만을 가꾸는 종의 태도를 꾸짖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만물에 평등한 화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주제] 사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바른 태도

20.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세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모두 세속적인 삶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가)의 화자는 부귀공명을 꺼리며, 청풍명월의 자연을 벗삼고 있고, 단표누항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세속적 삶과 명예를 멀리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어부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다)는 실용적인 복숭아나무나 아무 쓸모없는 잡목이나 모두 생명을 가진 똑같은 것으로 대하고 있기에,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어느 작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③ (나)에서 자연의 이미지와 인간의 세속적 삶의 대비를 통해 주체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④ 화자나 글쓴이가 현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작품은 없다. ⑤ 세 작품의 화자 및 글쓴이는 자신의 현실적 삶에 만족하고 있다.

21. 비판적 사고(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나)에서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풍경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노랫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로 뱃사람인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 했으나, 사실 부귀공명이 주체이기보다는 화자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한다는 것이기에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세속적 삶의 모습은 붉은 색의 이미지로 대비되어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마지막을 의문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가)에서는 '이만하면 만족한다.'로, (나)에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로 읽어내야 한다. ④ (가)에서는 봉두에 올라서 바라보는 풍경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나) 또한 안개 낀 호숫가와 배를 비추고 있는 달빛의 풍경과 더불어 세속을 멀리하겠다는 화자의 정서가 함께 드러나 있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화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준다. 즉, (나)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부라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의 자연은 화자와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달이 배를 비추고

있는 풍경은 화자가 살고 있는 어촌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줄 뿐이지, 달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은 아니다. [답] ①

23. 추론적 사고(작품의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나’는 복숭아나무만을 가꾸고 잡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을 나무란다. 종은 복숭아나무가 꽃도 좋고 열매까지 주는 이익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잡목은 미관상으로도 볼 것이 없고, 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나’는 복숭아나무이든, 잡목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종에게 잡목도 가꾸라 명령한 것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④ ‘나’와 ‘종’은 모두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 또한 인정하고 있다. ③, ⑤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4. 추론적 사고(어휘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흥에 겨워 ㉠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간다. 그리고는 산 위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해 있다. 그러므로 ㉠는 화자의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는 (다)의 글쓴이가 복숭아나무나 잡목이나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대상이다. 즉, ㉡는 뒤에 이어지는 ‘가죽나무, 상수리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의미를 추리해 보면 ‘어진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가죽나무, 상수리나무’는 ‘어질지 못한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② 두견화는 봄의 계절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5-28] 과학, ‘과학 기기 선도 사용자의 역할’

지문해설 : 이 글은 유기 화합물의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물리학의 양자 이론에 힘입어 발명된 NMR 분광계의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물리학에서 시작된 기기가 화학자인 로버츠에 의해 유기 화학의 핵심 장치로 탄생하게 된 과정을 다름으로써 설명된다. 즉 로버츠는 분자의 파괴나 변형 없이 화합물의 구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NMR 분광계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도 사용자’가 되었다. 그는 ‘선도 사용자’로서 유기 화학계에 이 기구의 유용성을 열심히 알렸을 뿐 아니라 기구가 유기 화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NMR 분광학은 유기 화학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주제] 선도 사용자의 역할과 의의

25. 추론적 사고(대상의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물리학 분야의 기구가 화학자인 로버츠에 의해 유기 화학에 활용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분자의 파괴나 변형 없이 화합물의 구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구인 NMR 분광계는 로버츠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다. 그는 이 기구의 유용함을 자신의 연구 방향에 적합하도록 배리언 사에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고, 배리언 사의 협조에 힘입어 자신의 연구를 순조롭게 진척시킬 수 있었다. 즉 그는 ‘선도 사용자’로서 기구의 장점을 관련 과학 분야에 널리 알려서 유용한 기구의 보급에 기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로버츠의 역할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답] ④

26. 추론적 사고(다른 대상과의 비교 분석)

정답해설 :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로버츠의 ‘NMR 분광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보기>에 제시된 미국 물리학자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와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다.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아인슈타인의 중력과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통 형태의 기구로서, 웨버가 직접 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물리학계의 공인을 받지 못하고 조작 시비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상의 존재 여부를 알고자 했던 것은 로버츠의 ‘NMR 분광기’가 아니라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NMR 분광계는 과학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활용했으나,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이를 이용한 연구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조작 시비에 휘말리기까지 했다. ② NMR 분광계는 배리언사에서 제작한 것이었지만,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이었다. ④ NMR 분광계는 물리학 분야의 양자이론에 힘입어 만들어진 것이고,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⑤ NMR 분광계는 화합물의 구조를, 웨버의 중력과 검출기는 중력과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는 지각하기 어려운 대상을 알아내고자 한 것이다.

27.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화학자인 로버츠는 물리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된 NMR 분광계라는 기구를 유기 화학분야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기구를 다른 과학자들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배리언사와의 공조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한 후, 선택지에 나온 반응의 타당성을 검토 해볼 때, 배리언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②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NMR 분광계가 배리언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물리학의 실험 기구였던 것이 유기 화학 연구의 핵심 장치로 쓰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③ 화학자 솔러리는 대학의 유기 화학자들과 함께 NMR 분

광계를 이용한 협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④ 배리언 사는 화학자 솔러리를 고용하여 NMR 분광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으므로, 이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 셈이다. ⑤ 로버츠가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커지자 자신의 연구 방향에 맞게 NMR 분광계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세부 연구 분야의 연구 방향이 로버츠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 어휘·어법 (단어의 유사성 이해)

정답해설 : ‘일찍이’는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의 의미와 ‘예전에, 또는 전에 한번’ 등의 의미로 쓰인다. 선택지에 주어진 문장들 속에서 ‘일찍이’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⑤만 ‘예전에’의 의미를 담고 있고, ①, ②, ③, ④는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답] ⑤

[29-32] 고전소설, ‘전우치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허균의 ‘홍길동전’을 모방하고, 선조 때의 실제 인물인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한 도술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전우치는 도사를 만나 도술을 배워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조정의 무능과 부패, 백성들의 고통을 고발하는 사회 의식이 담겨 있기는 하나, 지나치게 도술에 의존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 제시문에서도 조정에서 임시 벼슬을 맡은 전우치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술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주제] 전우치가 도술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함

29. 추론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전우치는 ‘문사낭청’이라는 조정의 임시 벼슬을 하고 있다가 도적으로 잡힌 이들의 신문 과정에서 역적으로 몰리게 된다.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다고 한 ②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원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임금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도술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③ ‘우치 역모함을 짐작하되 나중에 보려 하였더니’라는 구절 등으로 볼 때, 임금은 전우치를 평소 전우치를 신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전우치가 백성의 고통, 조정의 무능을 참다 못하여 집을 버리고 천하와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한 내용으로 볼 때 전우치가 개인적 이익보다 대의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이라는 임금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 [A]에서 높은 스승에게서 신선의 도를 배웠다고 하여 득도의 과정이 드러난 반면, <보기>에서는 득도의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았다. <보기>의 ‘신선’은 전우

치 아버지의 태몽에 등장하였으며, ‘도’는 전우치에게 불도를 가르친다는 대목에서 나왔는데 이를 종합하더라도 ‘득도’로 연관짓기는 어렵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는 전중보가 꿈을 꾸 후 아들을 얻었다. ② <보기>는 [A]와 달리 전중보의 행적이 제시되어 전우치가 불도를 배우게 된 과정과 관련지어지고 있다. ④ [A]에서는 ‘조선 초’로 시기가 제시되었으나, <보기>에서는 <인조 대왕 시절>로 시기가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⑤ <보기>에는 전우치의 아버지의 근본이 ‘관노’임이 제시되어 있다.

31. 추론적 사고(장면과 소재의 기능과 특성 추론)

정답해설 : ㉠은 전우치가 그린 그림에 대한 묘사로, 그림은 전우치가 임금 앞에서 그림 속의 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중간 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그림은 전우치의 도술적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나. 전우치가 임금을 단죄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우치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르. 사건의 요약적 제시란 시간의 흐름을 압축하여 사건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의 장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그림이 사건의 요약적 제시 방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어휘·어법(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각골통한(刻骨痛恨)’은 ‘뼈에 사무쳐 맺힌 원한’을 뜻하므로,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침소봉대(針小棒大) :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허풍을 떨어 말함. ② 목불인견(目不忍見) :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음. ③ 수수방관(袖手傍觀) : 팔장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를 않고 그대로 버려둠. ⑤ 기사회생(起死回生) : 거의 죽어가다 살아남.

[33-35] 예술,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미학 개념을 ‘무관심적 관심’, ‘목적 없는 합목적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적 무관심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예술의 지적, 실천적 역할이 도외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 예술의 고유한 가치와 실천적 역할의 조화

33. 사실적 사고(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독립 선언이 곧 고립 선언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예술의 고유한 가치만

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다른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기 힘들음을 언급한 것이다. 즉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고립 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예술이 사회에 대한 실천적 역할을 도외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답] ⑤

34. 추론적 사고(핵심 관점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이 주는 모든 외적 관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에만 집중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미학의 개념이다. 이는 대상의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 ‘무관심적 관심’이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관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화를 감상할 때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와 같은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③이 칸트의 입장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영화 제작의 의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②영화를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영화 ‘주인공’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⑤‘새로운 깨달음’을 영화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

35.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쇤베르크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의 높낮이와 리듬’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도외시킬 수 없고, ‘주음-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전략’에 담겨 있는 억압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간과할 수 없다. 음악이 갖고 있는 내적 의미 파악과 음악 외적인 지적·실천적·역할 모두를 추구하고 있는 음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답] ③

[36-39] 인문,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이 사고 작용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형성하여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뒤,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관찰 사례를 들어, 이러한 인간의 사고 작용이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하도록 하는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 글이다.

[주제] 사고 작용의 기능과 한계

36.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첫째 문단에서 지식 획득에 과정에서 사고의 기능을 언급하면서 사고 작용을 통해 사물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문단부터는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사례를 들어, 경험적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상화된 관

념에 의지하여 판단함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답] ④

37. 추론적 이해(시각 자료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글의 셋째 문단에 따르면, 사물의 속성은 변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물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사과라는 사물의 크기를 보는 시점에서 사과의 모양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둘째 문단과 <보기>를 견주어 볼 때 사과의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는다고 했으므로,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 크기의 관념이 의식 속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둘째 문단과 <보기>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관찰하여 얻은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했으므로,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③ 셋째 문단에서 사물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지만 사물의 속성은 변한다고 했으므로, 사과의 모양을 보는 시점에서 색깔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사물의 속성은 변해도 사물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사과의 모양을 보는 시점에서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38. 추론적 이해(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글의 주제는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이다. 이 글에서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고의 한계이다. ①에서 강의실의 속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 강의실’은 ‘어제의 강의실’과는 당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제의 강의실’에 대한 관념 때문에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이 맞나요?’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 설명한 사고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질문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도형의 종류, 자료 정리, 자신의 약속에 대한 망각,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 등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사고의 한계, 즉 사고 작용을 통해 사물을 인식할 때의 한계와는 무관한 주제들이다.

39. 어휘·어법(용언의 불완전한 활용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의 어간 ‘불구하-’는 ‘-에도’, ‘-는데도’, ‘-는데도’, ‘-은데도’의 뒤에서 주로 ‘불구하고’의 꼴로 쓰이며, ‘거리끼지 않다. 얽매이지 않다.’는 뜻을 나타낸다. 즉, ‘-고’라는 어미 이외에는 다른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의 밑줄 친 용언의 어간도 일부의 어미와만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용언들이다. 하지만 ㉠에서 ‘애처롭게’의 어간 ‘애처롭-’은 ‘애처롭게’, ‘애처로워’, ‘애처롭지’, ‘애처롭고’, ‘애처

로운' 등 다양한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허구하다'는 주로 '허구한'의 꼴로 쓰이므로 활용 방식이 '불구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③ '막다르다'는 주로 '막다른'의 꼴로 쓰이므로 활용 방식이 '불구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④ '서슴다'는 주로 '서슴지'의 꼴로 쓰이는 불완전 동사로서 활용 방식이 '불구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⑤ '가공하다'는 주로 '가공할'의 꼴로 쓰이므로 활용 방식이 '불구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0-43] 현대소설 - 이상, '날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현대인의 도착된 삶과 자아 분열의 의식 속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그린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심리 소설이다. 이 작품은 억압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지식인이 차츰 현실을 인식하고 억압적인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기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나'는 매춘부인 아내에게 기생해 사는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일상적인 상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날 그날을 맹목적으로 살아간다. 아내의 매음 현장은 그에게 금단의 공간이며, 아내의 매음 시간은 아내가 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 된다. 여기에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나'의 심리적 변화 과정이 나타난다. '나'는 '정오 사이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 '재생'의 욕망으로 불타게 된다. 여기서 '날개'는 억압된 세계, 전도된 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한다.

[주제]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 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은 객관적인 진술보다는 서술자인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며, 독백적 어조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서술자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나'가 지닌 자의식의 혼란과 자아 분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피곤한 생활이 푹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상의 기법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답] ②

41.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추리)

정답해설 : 작품 속에서 특정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묻는 유형이다. 이 작품의 배경인 일제 강점기의 서울에서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은 매우 높은 곳이었기에 건

물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옥상에 올라와서 ‘나’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면적 성찰을 한다. 또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조망하면서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옥상에서 바라본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쓰코시 옥상이 나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인공인 서술자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는 ‘미쓰코시 옥상’이 아니라 ‘정오의 사이렌’이다. [답] ②

4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 변화에 주목해 볼 때, ㉠ 이후로 ‘나’의 심리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후 ‘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가 담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를 참조할 때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 주인공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 줄 뿐,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⑤ <보기>에서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3. 추론적 사고(사건의 상징적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폐쇄적이고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뿐이므로, 이를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아내’가 현대 문명을, ‘나’가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에서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을, 지식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이 작품에서 ‘나’는 ‘아내’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보기>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변덕인다고 한 것은, 사라졌던 ‘나’의 희망과 야심이 다시 살아남을 표현한 구절이므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46] 기술, '기술 영향 평가'

지문해설 : 이 글은 국가기술 정책의 수단인 기술 영향 평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글이다. 기술·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기 때문에, 기술 영향 평가는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초창기의 기술 영향 평가는 사후적 평가와 처방에 주력했기 때문에 통제의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주제]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 방법이 갖는 의의

44. 사실적 사고(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해설 : 기술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기술 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과학적 기술 예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기술에 대한 완전한 평가와 예측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적 기술 예측이 기술 통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한 ②번 답지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④ 기술의 영향에 대해 예측을 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둘째 문단에서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영향에 대해 평가한 다음,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되어 있다.

45. 추론적 사고(논지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기술 예측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초창기의 기술 통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평가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사후적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을 통제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가 완벽한 기술 정책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초창기 기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평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정답] ③

46. 추론적 사고(논리적 전제의 추리)

정답해설 : ‘통제의 딜레마’란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된 까닭에 중단하는 것이 어렵게 된 ④번의 사례와 가장 유사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시장 원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평가에 따른 선택이다. ②, ③사전에 기술의 결함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이다. ⑤기술의 불완전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의 예측 결과를 잘못 계산하여 사고가 난 사례이다.

[47-50] 사회, ‘금융의 사회적 역할-마이크로크레디트의 사례’

지문해설 : 이 글은 은행의 핵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실시한 공동 대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당 프로그램이 거둔 사회적 효과에 대해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사업을 벌일 인적·물적 자본의 확보가 자활의 핵심요건이라고 파악하고, 실제로 빈곤층이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대출을 실시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동 대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 금융 공공성의 가치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주제] 금융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47. 추론적 사고(중심 화제의 속성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 나오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금융 배제층에 대해서도 창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몇 명의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연대 책임을 느끼게 하는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은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기본적인 창업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무상 원조가 아닌, 적은 돈이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가난한 사람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ㄴ과 ㄹ이 적절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48. 추론적 사고(추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지문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용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공동 대출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 명확히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여러 명이 모여서 대출을 한다는 점, 모인 다섯 명 모두에게 한꺼번에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선택지에 나온 내용들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동 대출 프로그램이 유독 여성들을 대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창업 교육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특별히 지문에는 밝혀 놓지 않았지만, 방글라데시임을 고려해 볼 때, 그 사회에서 빈곤하면서도 더욱 약자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추리해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② 분할 상환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갚는 것이므로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 부담이 적다. ③ 서로가 상대에 대해 얼마나 자활 의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에 짝을 짓게 되므로, 은행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자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④ 동료의 돈을 갚아야 자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동료의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도 노력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짝을 이룬 사람들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⑤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추가 용자가 가능하므로, 돈을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게 될 것이다.

49. 비판적 사고(대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답해설 :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은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부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보기>는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이 사회적 관심을 받다 보면, 해당 단체가 원래의 취지를 간과한 채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양질의 창업 지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가 초심을 지키면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런 <보기>의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어떤 방안을 내세울 수 있는지 고르는 문제로, <보기>의 사고와 유사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이 때의 핵심은 창업 지원 서비스가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용자해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신력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한다면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하는 폐해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답] ④

50. 어휘어법(문맥적 의미의 이해)

정답해설 : 지문을 통해 ㉠ ~ ㉣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이를 선택지에 쓰인 해당 단어의 의미와 비교해 보는 문제 유형이다. 어휘의 문맥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지문에 쓰인 어휘와 비교하여 유사한 것과 다른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의 ㉣에 쓰인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하여 펼쳐 놓다’의 의미로

쓰였지만, ⑤의 ‘별이다’는 ‘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치하다’는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이다’의 의미이다. ② ‘희박하다’는 ‘감정이나 정신 상태 따위가 부족하거나 약하다’의 의미이다. ③ ‘떨어지다’는 ‘수준이 처지거나 못하다’의 의미이다. ④ ‘거두다’는 ‘좋은 결과나 성과 따위를 얻다’의 의미이다.